

# 전남 조합장 179명 뽑는데...33곳이 수사중

### 2주일 남은 동시선거 목포·신안·함평 등 곳곳 흔탁

### 농협 27·수협 3·축협 3곳...공명선거 실천 다짐 무색

조합장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비롯해 금품을 뿌리고 향응을 제공하거나 하던 상대를 핍박하는 등 흔탁한 선거 풍토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김·경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무질서·흔탁 행위에 대한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과열과 불·탈법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전남경찰, 조합장 선거 열리는 33곳 수사=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179명을 뽑는 전남지역 농·수·축

협 및 산림 조합 가운데 33곳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신안지역에서만 농협 5곳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농협이 27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외 수·축협이 각각 3곳으로 집계됐다.

합평경찰의 경우 조합장 후보의 사전기부행위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완도경찰은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경비 지원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

다. 한 달 넘게 남은 현재 적발건수는 경고 36건, 수사의뢰 1건, 고발 8건 등 45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집중적 관리·감독으로 만연된 불·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 동시 선거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광양에서는 농협 조합장 후보 A씨가 조합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각각 현금 100만원과 3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고 영광의 경우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명선거 ‘쇠 귀에 경읽기’=광주·전남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실천 다짐대회를 여는가 하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명 선거를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와 진정률의 추이는

가 한층 과열됐다는 게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15명의 조합장을 뽑는 나주 지역의 경우 예비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시비를 비롯, 축·조이금 등 경조사비 제공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선심성 경비 지원 의혹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동했다. 순천도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시비 제기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혼탁 양상이며 우수에서도 농협조합장 후보에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부각하고 현금을 건넨 혐의로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고향 정 들뚝 안고 다시 일터로 설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고속버스에 오르기 전 작별을 아쉬워하며 지인과 손을 맞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중·고생 희망직업 1위 교사...초등남학생은 운동선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2일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자료에서 작년 7월 설문에 응한 전국 초·중·고교생 18만402명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남녀 중·고등학생과 여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생 7만3262명, 중학생 6만2203명, 고등학생 4만4937명이 응했고 이들 중 초등학생은 87.1%, 중학생은 68.4%, 고등학생은 70.5%가 희망 직업이라고 답했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밝힌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남학생은 9.0%가, 고등학교 여학생은 15.6%가 각각 교사라고 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그

다. 교사는 지난해 '4대 사회악' 근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2013~2017년 5개년 계획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건수의 비율인 성폭력 미검률은 지난해 목표치 10.6%를 넘어선 5.0%를 달성했다.

이해 올해 목표치인 10.1%의 절반도 안 돼 경찰은 올해 미검률을 4.9%까지 낮추기로 수정했다.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비율인 성폭력 재범률 역시 지난해 5.4%로, 목표치(6.3%)를 초과 달성했다. 이 또한 올해 목표치(6.2%)보다 낮아 올해 재범률 목표치를

### 경찰 '4대 악' 근절 목표 초과 달성...올 목표 상향 조정

5.3%로 재설정했다. 이는 2013년 6월 성범죄 신고율 폐지 이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데다 국민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또 지난해 가정폭력 재범률도 목표치(11.4%)를 넘어선 11.1%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기존 11.1%에서 11.0%로 수정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작년 목표치가 2.0%였지만 1.3%를 기록, 이미 2017년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치(1.9%)를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학교 전담경찰관을 기존 1078명에서 1138명으로 늘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반 업무를 의무업체에 내주다 다른 공정에 배제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4월 광주지법에 도급 금지 가져분 신청을 낸 금호타이어 1노조 소속 대의원 김씨의 승용차에서는 A4 한 장 분량의 유서와 도급허를 반대하는 조합원의 서명 결의문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제가 죽는다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호타이어만은 바뀌어 줬으면 합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 세상에서 저도 노력할게요”라고 적혀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 /극성=김계중기자 kjkim@

## 설 연휴 교통사고·강도·폭행 잇따라

설 연휴 광주·전남은 대형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했다. 그러나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잇따르거나 하면 강도, 폭행치사 사건도 끊이지 않는 등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지난 21일 오전 9시40분께 보성군 회천면 한 삼거리에서 박모(24)씨가 운전하는 1t 화물차와 군내버스가 충돌했다. 이로 사고 박씨가 중상을 입고 버스에서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여수시 돌산대교에서 돌산 방향으로 진입하던 승용차 4대가 추돌해 탑승자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새벽 1시20분께에는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이모(32)씨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된 활어 차를 추돌해 이씨가 숨졌다.

교통사고와 함께 강도 사건, 폭행치사 등 강력 사건도 연휴기간 잇따랐다. 순천경찰청은 설날인 19일 오후를 들이 편의점에서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윤모(34)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40분께 순천

시 해룡면의 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중일원 박모(32)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박씨의 옆구리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연휴 첫날인 18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55)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술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과 폭행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김씨를 폭행했던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같은 날 광주동부경찰은 옛 업무의 집에 찾아가 흥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중국인 G(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주택 계단에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59)에게 미리 준비한 흥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 민선 사망 곡성 금호타이어 노조원 도급허 관련 축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노조원이 분신에 숨졌다.

16일 밤 9시10분께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분과동 앞에서 직원 김모(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앞서 곡성경찰은 이날 오후 8시 김씨가 가족과 다룬 뒤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었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동료 노조원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공동발전위원회 회의장에 향의 방문한 뒤 일부 공정 도급허(외주화)를 반대하는 농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인 김씨도 사측의 지난해 12월 통보에 따라 곡성공장에서 맡았던 운

반 업무를 의무업체에 내주다 다른 공정에 배제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4월 광주지법에 도급 금지 가져분 신청을 낸 금호타이어 1노조 소속 대의원 김씨의 승용차에서는 A4 한 장 분량의 유서와 도급허를 반대하는 조합원의 서명 결의문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제가 죽는다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호타이어만은 바뀌어 줬으면 합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 세상에서 저도 노력할게요”라고 적혀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 /극성=김계중기자 kjkim@

## 화물차 불법증차 목인 돈받은 공무원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2일 화물차 불법증차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로 기소된 영암군 공무원 조모(48)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준 화물운송업자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는 징역 1~3년의 집행유예, 또 다른 업자 유모(56)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직무와 관련한 탈법행위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먼저 업자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원인 가장 40대 여성이 판공서 돌며 점심시간 상습 절도

○...민원인을 가장 해 판공서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들미.

○...2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여·45)씨는 지난 2월 이후 12시30분께 판공시 서구청 5층 사무실에서 오모(여·37)씨 등 3명의 책상에서 현금 46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판공시청과 북

구청 등 판공서를 돌아다니며 17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민원인을 가장해 판공서에 들어간 뒤 점심시간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법원을 저질러온 이씨는 경찰에서 “시각장애 2급인 남편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제경매가격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b>[아파트]</b>					
2014타경 19989	1	북구 호동로 99, 101동 12층 1202호 96.64㎡	아파트	138,000,000원	138,000,000원
2014타경 22282	1	광산구 신광로 1108-3 상남아파트 104동 4층 405호 84,986㎡	아파트	169,000,000원	169,000,000원
2014타경 22831	1	북구 편현로 11, 105동 5층 501호 [임대] 아파트	아파트	116,000,000원	116,000,000원
2014타경 24813	1	북구 양산동 18-3 호반리전시빌아파트 202 2층 206호 84,686㎡	아파트	151,000,000원	관리비약, 1,300,000원미납상대
2014타경 25281	1	북구 태곡로66번길 2, 1동 2층 211호 59.3㎡	아파트	86,000,000원	86,000,000원
<b>[대지/임야/전답]</b>					
2014타경 21975	1	당양군 당양읍 격사리 211-43 87㎡ [공유지] 이승민, 이진애각자분4분의1전부, 매각제외 차용증고소차, 현황나대지	대	19,662,000원	공유자우선순회권 형사재판, 2014타경25792[별첨]
2014타경 22657	1	나주시 새지민 송재리 216-8 1383㎡ [현황] 하현웅소 216-11 63㎡ [현황] 박진, 권부지, 도오]	전	21,980,200원	일괄매각, 목책1-3강종지, 휴경전, 매각대상어년건물 [목책등]소재, 목책2농지취득차
		동소 216-13 3㎡	도로		격증영양
		동소 216-14 79㎡	도로		
		동소 216-18 112㎡ [현황] 건부지	하천		
	2	동소 370 393㎡	대	7,074,000원	매각제외건물및비허용소소재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제경매가격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23179	1	나주시 봉황면 선동리 26 245㎡	대	4,410,000원	매각대상어년건물 동종차
2014타경 23940	1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767-1 3097㎡	답	49,471,800원	일괄매각, 농지취득소 3동말시설매각제외
	2	동소 767-2 2634㎡ [현황] 우정익양석장, 비닐하우스 3동말시설매각제외	답	49,471,800원	목각격증영요
2014타경 24110	1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73 1818㎡	답	21,099,000원	일괄매각, 농지취득소
	2	동소 273-1 1428㎡ [현황] 답	전	21,099,000원	목각격증영요
2014타경 25113	1	나주시 공산면 황성리 167-10 1091㎡	대	16,365,000원	농지취득차격증영
2014타경 25113	1	서구 마태동 177-1 2296㎡ [현황] 담장일부]	답	42,653,910원	공유자미한적지분전]
	2	[공유자우선순회권상환차, 근린공용]	답	42,653,910원	3002분의330전부
<b>[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b>					
2014타경 23452	1	남구 봉선동 138-2 플러스존 1층 110호 61.00㎡	근린시설	384,000,000원	인접109층임대무
2014타경 24653	1	북구 중흥동 362-2 세너스전대 1층 107호	근린시설	384,000,000원	황정동프로미어음
	2	49.63㎡	전	233,000,000원	점포 2개호로이음
2014타경 22428	1	북구 중흥동 711-9 300㎡	대	1,104,965,120원	일괄매각, 폐시외
	2	북구 광양로165번길 10 1층 47.84㎡ 2-4층 236.84㎡ 5층 220.77㎡ 6층 202.95㎡ 지하 1층 47.84㎡	여권및사무소	1,104,965,120원	건물포함매각, 목책2현황여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도 다스려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포기재수권고인이 매각물건일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하거나 불합격할 수 있음.  
 ○ 공매도가 민사법정판 결정으로 인한 무효취득수권등 청 구 경우 그 취소로 집행되는 매각가액에 불응재산의 미납금액은 실측도 면적보다 그 공매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가액에서는 우선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로서 집행 가액의 다른 포기재수권고인 있는 경우 포기재수권고인 배당권우선 배당수권고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5. 3. 10.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3. 17. [목] 10:00